

국무회의

현재는 위기 상황 대처에서 공백상태입니다. 위기대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비상 소집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비상을 걸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논의 안건은 미국을 떠나면서 미국 가서 하고자하는 목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몇 차례 이야기했으나 정작 국무위원들에겐 공식적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회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알려지기로는 물류파업대책을 주로 이야기할 것 아닌가 생각할 텐데, 단지 물류중단사태만이 이유였다면 관계 장관회의나 총리 주재 대책회의에 맡기고 갔을 것입니다. 출국행사도 간소화하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한 말씀 드리겠으니 양해바랍니다.

물류사태문제는 당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질적인 원인 제도적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합리적 경쟁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교섭지위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장 붕괴의 요인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오늘 당장 다 토론해서 끝내자는 것은 아니고 차제에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류문제와 관련해서 부딪쳐보니까 위기상황이자, 비상사태라는 것입니다. 위기대처 시스템이 과거의 것은 해체되고 새로운 것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문제를 총리실도 청와대도 아닌 국정원에서 총괄했습니다. 국정원이 대비태세까지 다 마련하고 지방에선 관계기관대책회의도 열었습니다. 국정원의 지휘 하에서 위기대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부분은 실제 국정원의 고유기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 맡기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위기 상황 대처에서 공백상태입니다. 어느 한 부처가 감당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총리실도 조정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비상사태 조정이나 대처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국정원장과 비서실장 등 측근 직보라인이 했고, 국정원에서 조정업무에 나섰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공식적인 것 보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과제도 얽혀있습니다. 많은 욕심을 부릴 일이 아닙니다. 대체로 북핵문제는 한국도 미국도 그동안 원칙을 확인해왔습니다. 북핵 해법이 이런 원칙 하에서 새로운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협상전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진행중인데 그런 것을 합의한다고 하면 전략을 노출하게 됩니다.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